

01 교회소식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GCN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당회장님의 환자기도, 최고예요!”

손목에 생긴 결장종, 어깨의 석회 등 질병의 문제를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해결받은 성도들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

04 간증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

기독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음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된 멕시코 베아트리스 성도와 우크라이나 수잔나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862호 2018년 11월 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전 세계에서 함께해요!”

교회 홈페이지, GCN방송, 책자, SNS 등 구원의 길로



전 세계 곳곳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접한 후, 각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8개 언어로 된 교회 홈페이지와 시청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GCN방송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총 8개 언어로 되어 있다. 그 안에는 창세기 강해 등 설교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과 찬양, 각종 교회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성경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던 칠레의 까를로스 델가도 뿌엔페알바 형제(26세)는 엔라세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에서 우연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 이후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목사의 설교를 섭렵하였다. 그는 “어디서도 못 보지 못한 송이꽃 같은 말씀을 통해 이제껏 해결 받지 못했던 신앙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니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관홍 집사(49세, 남)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창세기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복음 강해’, ‘믿음의 분

량’ 등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대하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주님을 믿는다 하며 나름대로 진리를 가르친다 하였지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제는 참 생명을 얻고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www.gcntv.org) 또한 설교, 찬양, 간증은 물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전파하고 있다.

몰도바의 알렉산드르 타바라누 형제(33세)는 “TBN러시아 방송을 통해 GCN방송 프로그램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지옥’ 설교를 시청하고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를 계속하여 들으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라고 했다.

그는 급성 폐성심으로 죽어가던 모친이 이 목사의 기도 소생하는 권능까지 체험하며, 생명의 말씀을 주변에 뜨겁게 전함으로 몰도바만민교회가 탄생되었고 현재 7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61개 언어로 번역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들과 인터넷, 유튜브 등 각종 SNS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있는 메시지는 112권의 신앙서적과 61개 언어로 번역된 505종의 다국어 책자, 532종의

전자책으로 발간되어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후안홍 집사(41세, 여)는 “저는 우울증으로 고통 받았고 가정에 다툼이 그치지 않았는데, 지인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 『믿음의 분량』 등을 소개받고 온 가족이 읽었습니다. 그 뒤 이 목사님의 환자기도로 우울증, 심장병 등을 치료받고 가정이 화평해졌으며 남편의 사업터도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각종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 각처에서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을 접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술과 마약에 빠져 건강에도 문제가 많았던 에콰도르의 조르다니스 까스프로 성도(45세, 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재록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고 감동되었습니다. 이후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 기도생활을 시작하였고, 환자기도를 받음으로 술과 마약을 완전히 끊었으며,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과 폐질환, 만성 신경질환까지 치료받았습니다”라며 감사해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행복한 삶으로 대반전을 이룬 그는 현재 유튜브를 통해 페루, 콜롬비아만민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며 이 목사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리즈 3

빛 가운데 행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6~7 -

“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람마다 사귀어 정도의 따라 친숙한 정도가 다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다르며 일을 이루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으니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사귀어 가져야 할까요?

1.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과 사귀어 가지려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나 전쟁에 나가 싸울 때도 일일이 하나님께 여쭙어 그대로 행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요 (삼하 5:19~25). 빛이신 하나님과 다윗이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도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물뿔 다섯 개를 들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담대히 골리앗에게 나아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물뿔들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골리앗이 쓰러지고 전세가 역전되어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이 확고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고, 마치 부자간에 대소사를 논하듯이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 보옵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하셨지요(출 33:11~23).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어디 내려오자 그 사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며 대신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나 합의 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지요(출 32:32).

모세 또한 이처럼 큰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민 12:3)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빛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귀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면 다윗이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신실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 놓은 것을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거나 보장받을 수 없으며, 기도의 응답도 더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육적인 충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충성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충성이란, 마음의 활력을 받아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충성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義)란 하나님께서 난 의,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믿음을 좇아 순종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인(仁)이란 삶 속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신(信)이란 믿음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의와 인과 신을 이루는 것이 마음의 활력을 하는 것이며, 또한 율법의 더 중한 바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가독서 우송료만은 정가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으니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십일조 생활을 하는 등 행함도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되,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내용과 형식은 무엇인지 밝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지요.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며 이루어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2. 할례의 성경적 배경과 마음의 할례

할례란, 난지 팔 일 만에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할례에 관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시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으니 할례는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 17:9~14).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구약이며 장차 오는 것은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할례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이는 육적인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신 10:16, 30:6 ; 롬 2:28~29).

예레미야 4장 4절에 “...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한 대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육체의 일, 곧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를 신속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면 끊어야 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를 벗은 다음에는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곧 육신의 일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통한 자신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부모로부터 이어 받은 근본 기(氣) 속에 있는 죄성까지 빼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몸과 결합된 죄성 곧 육신 자체를 뿌리째 뽑아내야 육신의 생각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벗어내야 합니다. 자기 보기에 의, 자기적인 틀 등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고 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 기도생활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며 갖고 깊이 하나님의 일을 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지요.

이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케 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까지 알려줍니다.

3. 하나님의 자녀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내 형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원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음 받기 원한다면 먼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요일 1:7).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마음의 근본 죄성은 남아 있기에 마음의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사망의 길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사랑의 연단을 하시며 때로는 징계를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54절에 “...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인자의 살’은 곧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요(요 1:1, 14),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즉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식 삼아 행해 나갈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영양분으로 소화 흡수되고, 모든 죄악은 찌꺼기로 배설되므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심고 행하는 만큼 이 말씀이 영양분으로 흡수되면서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은 찌꺼기로 배설되고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마음에서 모든 악을 빼내어 배설하는 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츰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다 하는 것이요, 이러한 사귀어 통해 빛 가운데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라 칭함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직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속하고, 깨끗하게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치료받았어요”



정옥란 권사(59세, 1대대 9교구)는 오른쪽 손목에 결절종이 생겨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으나 다니엘철야 기도회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은 결과, 결절종이 깨끗이 사라졌다.

초음파 사진



▲ 기도받기 전: 0.85cm 크기의 결절종이 우측 손목 위에 발견됨.

▲ 기도받은 후: 우측 손목 위에 있던 결절종이 사라짐.



변현자 권사(49세, 4가나안 선교회)는 왼쪽 어깨의 석회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왼팔을 아예 사용할 수 없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았는데 3일 만에 완치되었다.

X-Ray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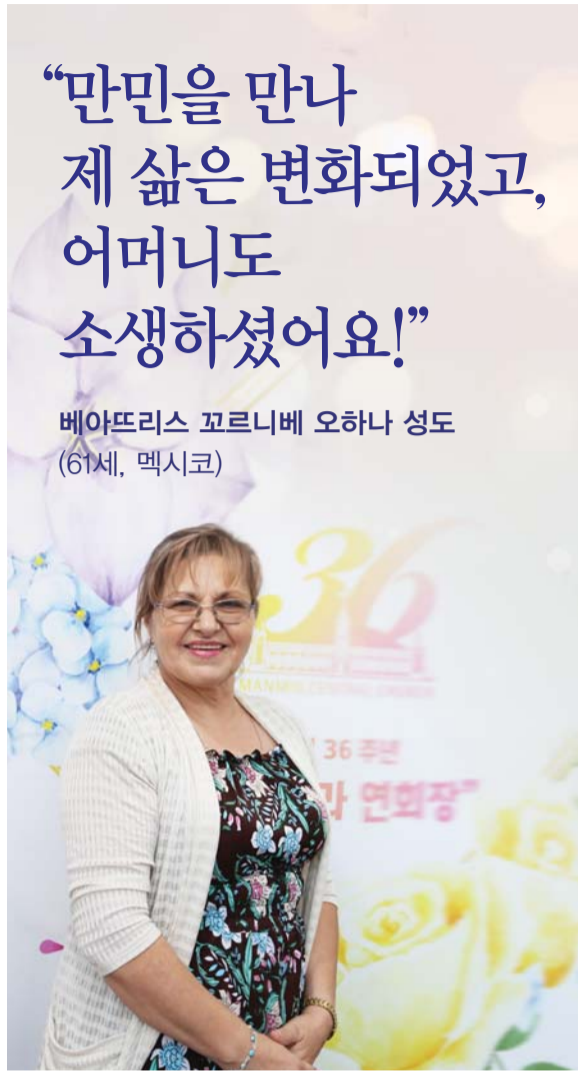
▶ 기도받기 전: 오른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뼈의 머리 부분이 분쇄 골절을 보이고 있음.

▶▶ 기도받은 후: 분쇄 골절된 골조각이 제자리로 잘 유합되어 있음.



길기쁨 자매(28세, 대전만민교회)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쳐 손가락 끝마디뼈가 떨어져 나갔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와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부러진 뼈가 잘 붙어 정상이 되었다.





“만민을 만나 제 삶은 변화되었고, 어머니도 소생하셨습니다!”

베아트리스 코르니베 오하나 성도
(61세, 멕시코)

저는 주님을 영접한 후 영안이 열리는 등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교회들의 무질서와 편파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무엇이 참된 길인지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해 결국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지요.

그 당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목회자도 제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니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큰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2010년 어느 날, 새벽잠에서 깨어났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을 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엔라쎬(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가르침이 참임을 알 수 있었지요. 영적으로 갈급했던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500편이나 들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영혼술』, 『깨어라 이스라엘』, 『권능』 등과 다수의 설교 텍스트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한 편 한 편 말씀들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왜 그동안 영적 변화를 이룰 수 없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변화되었고 가족의 문제도 차츰 해결되었지요. 인터넷으로 매일 만민중앙교회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니 행복했습니다.

2015년에는 만민중앙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았지요. 그때 저는 우측 무릎연골이 손상되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당

회장님께 직접 기도를 받은 뒤 치료되어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 올해 초,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받은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지난 6월, 조현병을 앓던 어머니가 치료제(항정신병제제)를 과다 복용하여 폐렴이 왔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60%밖에 안 되어 체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약 14일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저는 권능의 손수건을 어머니 위에 얹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를 거칠게 대했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 뒤 회복되기 어렵다던 의료진의 말과 달리 어머니는 폐렴뿐 아니라 요실금도 치료받고 기력을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명감을 가지고 멕시코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를 배포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스페인어, 불어 신간 책자를 영혼들에게 전해 줄 예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한 권, 한 권은 마치 보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제 안의 어둠을 발견케 하니 그럴 때마다 더욱 변화되고 싶은 뜨거움으로 충만해지지요. 성결 된 삶과 천국을 소망케 하며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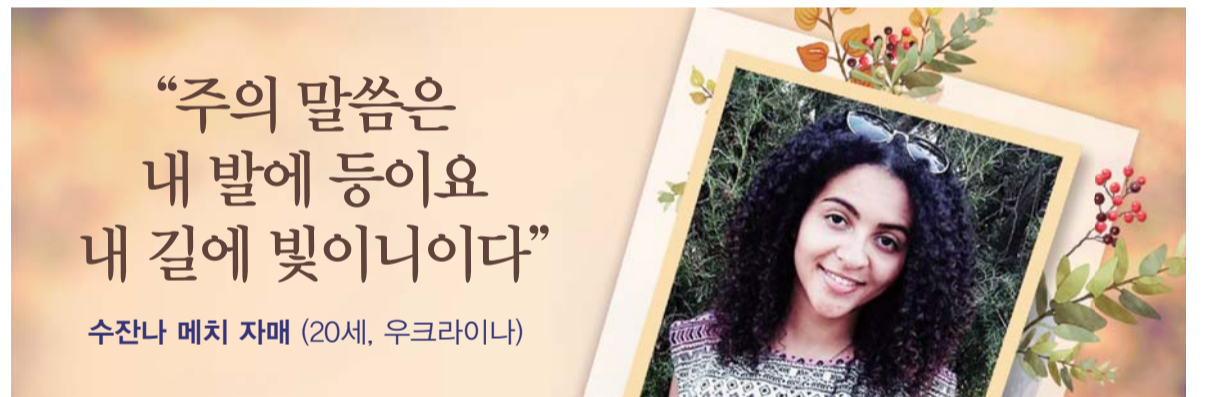
영적으로 피폐해진 마지막 때에 참 진리를 선포하시는 귀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던 2009년, 저희 가족은 TBN러시아(러시아어 위성방송)를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서 다른 많은 설교도 찾아 들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때면 뜨거운 사랑이 임했고, 진실한 분임이 느껴졌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온 가족이 말씀대로 살아가 노력하니 아버지(안톤 베구)의 사업터는 번창하여 많은 축복이 임했습니다.

2015년, 고등학생 당시 친구들은 주말이면 놀러 다녔지만 저는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았지요. 설교를 들으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십일조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수잔나 메치 자매 (20세, 우크라이나)

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였더니 하리코프 시에서 가장 좋은 하리코프 국립의과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였지요. 당회장님께서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힘들 때면 그 말씀을 떠올리며 열심히 하였습니다.

지금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심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2018년에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와 모든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지요.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당회장을 만나지

못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구원은 받았을까?’라고요.

이제는 영원한 진리를 알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불같은 기도로 죄악을 버리고 성결 되어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진리임을 깨달았지요.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7 ☎055)322-7055, 010-6605-2254
- 남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50번길 26,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031)905-2419, 010-2352-8336